

데스크 시각

염정공서(廉政公署)



홍행기 정치부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근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지자체 일부 고위 간부들이 비리와 부패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 보여주듯, 공직자들의 부패가 그만큼 심각할 때문일 터다.

객관적인 평가를 보더라도 우리의 부패 수준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정도다. 세계적 반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웃 국가인 홍콩의 부패인식지수는 75점으로, 전체 168개 조사 대상 국가 중 최상위권인 18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37위다. 그럭저럭 상위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 경쟁 상대로 꼽히는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공동 27위다. 선진국 가운데서는 사실상 '최하위권'인 셈이다.

홍콩은 어떻게 깨끗해졌나

하지만 우리를 현저하게 앞선 홍콩도 1970년 때까지는 말 그대로 '부패의 온상'이었다.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이 영국에 할양한 뒤부터 홍콩은 자유무역 지대라는 지리적 이점, 중계 무역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영국식 제도와 인프라를 무기 삼아 성장 가도를 내달렸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그렇듯,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패도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당시 홍콩에선 경찰이 부패 조사권을 갖고 있었기에 경찰은 부패 혐의를 발각되거나 처벌되지 않았고 심지어 경찰이란 직업은 '저위험, 고수입'의 대명사로 불렸다. 물론 홍콩도 경찰청 수사부에 반부패국(ACB), 반부패부(ABO)를 설치해 부패를 감시했지만 경찰에서 독립하지

못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냈다.

결국 1973년엔 430만 홍콩달러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경찰 간부 고드버(Godber)가 영국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6개월간의 정국적인 시위 끝에 고드버는 홍콩으로 소환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패와 사정을 총괄하는 검사장과 민정수석이 되려 부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하는 대목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절감한 홍콩 정부는 1974년 총독 직속으로 경찰 및 행정기구와 독립된 체계를 갖춘 '염정공서'(廉政公署·ICAC)라는 조직을 탄생시킨다. 염정공서의 3대 조직 중 하나인 '집행처'는 사건의 접수와 수사를 맡았으며, 영장 없이도 체포와 가택 수색을 할 수 있었다. 또 '방지탐오처'는 부패 방지를 위한 공무원 교육을 담당했다. 특히 '사물관계처'는 부패 방지를 위한 일반 시민 교육과 함께 언론 및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부패의 폐해는 부패랑처럼

부패 경찰관을 대거 잡아들이는 바람에 경찰과 큰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염정공서의 활약에 힘입어 홍콩은 2004년 국

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 146개국 중 16위, 2008년에는 12위로 뛰어올랐다. 당시 한국은 40위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염정공서의 성공에 대해 "기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설계와 법 집행이 잘 이뤄진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부패의 폐해는 부패랑처럼 결국 모두에게 되돌아온다'는 시민의식이 형성됐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실제로 홍콩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부패 방지 및 신고 교육을 했다. 또 신문과 방송 등 주요 언론매체에는 염정공서 직원이 부패를 단속하는 드라마와 다큐를 편성, '부패와의 전쟁'에 여론의 지지를 끌어들이었다.

공수처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염정공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독립된 수사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특히 청렴한 사회가 삶의 질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점, 그리고 지연·학연·혈연으로 이어진 부패의 고리는 결국엔 사회를 망치는 부패랑이 된다는 점을 모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redplane@kwangju.co.kr

은편클럽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행정학박사

만약 술(酒)이 말을 한다면 "저는 억울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음식이 있지만 저처럼 누명을 많이 쓰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온갖 못된 행위는 자기들이 다하고 문제가 되면 저를 핑계를 대니 정말 억울합니다. 심지어 국민을 개돼지라고 망언을 한 그 인간도 저 때문이었다고 돌려댔더니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라고 푸념할 것 같다.

생각해보니 술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음식도 없을 것 같기는 하다. 그레, 술이 무슨 죄가 있었는가? 과음하고 행동들 절제하지 못한 인간들이 잘 못지 술은 죄가 없다 하겠다. 하지만 멸절할 인간을

술(酒)로 망가진 사람들

무장해제 시키는 술의 속성이 죄란말 죄기에 인간과 술의 공방은 계속될 것 같다.

조선시대에도 술로 망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양녕대군은 술 때문에 아버지인 태종의 신임을 잃고 동생 충녕에게 세자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양녕대군의 아들 이해(李淮) 역시 취중에 살인을 저질러 왕의 조카임에도 경남 고성으로 유배가서 죽었다. 연산군이나 광해군의 폭정에 도기폭제 역할을 한 것 역시 술이었다.

송강 정철은 당대 최고의 애주가였다. 그가 쓴 시조 장진주사(將進酒)의 '한 잔 막세 그려/ 또 한 잔 막세 그려/ 꽃 꺾어 세어가며/ 무진 무진 막세 그려'의 구절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는 술을 즐겼다. 선조실록에 보면 '도승지 정철은 술주정이 심하고 광망(狂妄)하니 해임 하소서'라거나 '예조 판서 정철은 술을 좋아하고 실성(失性)하여 지난날 승진 발탁했던 일에 대해서도 물의가 많으니...개정 하소서.'라고 사간원에서 까지 그의 오점을 탄원했다. 선조도 그의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적은 은전으로 하루 세 잔만 먹도록 했으나 송강은 은전을 넓게 퍼서 아예 주발

로 만들어 마셨다면 그의 실력을 알만하다. 송강은 선조의 신임으로 다시 서용되긴 했지만 술로 인한 파지의 수모와 지탄은 끝내 그를 따라다녔다.

오원 장승업 역시 호가 취명거사(醉冥居士)라고 할 만큼 술에 살고 술에 죽었다. 고종황제가 부탁해도 그리지 않던 그림을 뒷골목 기생의 술 한 잔에 선뜻 붓을 드는 술꾼이었다. 그림값을 모았다면 당대 거부가 되고도 남았겠지만 평생 그림값을 술 마시는데 모두 없었으니 과히 술꾼이라 할만 했다. 천재화가였지만 술에 취면 그의 삶은 너무나 안타까웠다.

영조는 술의 폐해가 심하고 흥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므로 금주령을 내려야 한다는 신하들의 건의에 대해 "술은 곡식을 씹히고 재물을 허비하며, 술을 마시면 예의를 지키지 않아 집안이 망하고 관리들은 기강이 무너져 나라가 망하게 된다.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해 곡식을 절약하고 윤리와 풍도를 바라 잡도록 하라"고 금주운명을 선포했다. 백성들에게 전한 금주령을 내린 것이다. 궁중의 제사 때에도 술 대신 차를 올리도록 하고 금주령

을 어긴 자를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조 자신은 정작 백성을 몰래 반주를 즐겼다. 당시 문인 상대자들 지은 '청성잡기'에는 임금이 내린 송철차를 마시고 나니 취기가 돌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암행어사 박문수가 영조에게 술을 적게 마실 것을 권유했다는 기록을 보면 권력자의 이중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명심보감에 '주중불언은 진군자요 재상분명은 대장부(酒中不言眞君子 財上分明長夫)'라고 했다. 술에 취했을 때 허튼 소리를 삼가는 자가 참 군자이며, 재물 앞에서 공사(公私)를 분명히 하는 자가 대장부라는 뜻이다. 최근 지도층의 폭언과 망언, 공사구분 못하는 탐욕이 민심에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다. 술과 재물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거나 정도를 잃으면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은편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심는 코너입니다.

기 고



김요수 광주정보문화진흥원 콘텐츠산업 본부장

자라는 아이들도, 영글어가는 청년들도, 세상을 먹여 살리는 어른들도 손가락을 뻗아대고 있다. 공부를 해도, 농사를 지어도, 회사에 다녀도 고개를 숙이고 네모난 창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깔짝거리다. 스마트폰이다. 아침에 깨어나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손에 쥐고 사는 사람들 많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낱씨를 찾고, 아내에게 맛있는 식탁을 차려주고픈 젊은 남편은 요리를 찾고, 늘어줄 사람을 찾는 아이들은 놀이를 찾는다. 나들이할 곳을 찾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사랑을 찾는 방법까지 온갖 세상일들이 스마트폰 안에 있다. 흔한 말로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열고, 스마트폰으로 생각을 모으고, 스마트폰으로 삶을 꾸린다. 손 안에 들어온 세상, 스마트폰 속에 펼

우리는 모두 웹꾼!

쳐진 세상이 바로 '웹'이다. 거미줄이란 뜻을 가진 웹. 우리는 웹에서 여러 정보를 얻고, 글을 여어간다. 웹은 우리의 친구이자 선생이기도 하고, 함께 사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웹에서 만나는 정보들이 바로 '콘텐츠'다. 콘텐츠는 셀 수 없다. 만화를 그려서 재미를 주고, 소설을 써서 감동을 주고도 한다. 만화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 실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아이디어 상품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들은 웹툰, 웹소설, 웹애니, 웹광고란 이름으로 이미 정착되었고, 그 수요와 공급이 엄청나다.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알맞게 30초에서 3분 정도로 구성된다. 이를 전문가들은 '스낵컬처'(Snack culture)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간식을 먹듯 찜찜이 콘텐츠를 즐기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도 모르게 스낵컬처는 삶을 채우는 간식이 되었고, 앞으로 스낵컬처는 우리의 중요한 양식이 될 것이다. 스낵컬처로 만들어지는 웹콘텐츠는 많다. 춘향이 사설처럼 길고 긴 드라마도 짧게 웹드라마로 바뀌고 있고, 짧은 시간에 깊이와 지식을 제공하는 웹다큐, 춤이나 노래를 비롯한 재능을 짝 차게 만드는 웹엔터테인먼트도 있다. 식물이나 동물을 기르는 취미,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본 후 기, 국내는 물론 외국여행을 다녀오 이야기,

맛집을 찾아 요리를 즐기거나 실제 요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웹콘텐츠들은 이미 우리가 자주 만난다. 공부를 잘하거나 노래와 연기를 잘해서 이름 짜해지는 시대가 지났다. 모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웹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웹콘텐츠는 밥벌이 수단으로 충분해졌다.

무엇보다 1인 방송을 하는 웹콘텐츠창작자들이 있다. 크리에이터나 비제이(BJ)라고 불린다. 게임관련 방송을 하는 대도서관(나동현), 대도서관의 부인이자 인기 BJ인 율령(이유미), 어린이 대통령으로 불리는 도티(나희선), 자신의 성과 필할하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양명(양지영), 시사문제를 속 시원하게 털어주는 국립근, 17만 대국 소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빠가울리(홍진기), 한국인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데이브, '섭이는 못 말려'라는 유머 채널을 운영하는 조섭, 먹는 방송의 끝을 모르게 하는 최고기(최범규), 쉽고 재미있는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짱피디(장주영). 모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콘텐츠로 만들어 공급한다.

무엇이든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크리에이터(BJ)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들 수입 또한 웬만한 대기업체 임원들을 넘어서기도 한다. 새로운 직업이 되었고, 산

업화가 되었다는 뜻이다.

지난 6월,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모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모였다. 이 들뿐 아니라 파크도, 램램, 안재익, 김재인 등 내로라하는 크리에이터들이 '광주 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모였다. 80년 '민중'만 주먹을 불끈 쥔 사람들이 모였던 5·18민주광장에 '스마트폰'을 불끈 쥔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모였다.

웹콘텐츠를 내걸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페스티벌. 크리에이터들은 사인회는 물론 크리에이터가 되는 조건과 준비를 말해주었고, 컨퍼런스에서는 웹콘텐츠의 혁명과 포맷 그리고 미래를 짚어 새 있게 설명했다. 웹콘텐츠에 투자하려는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했고, 광주는 문화수도임을 알렸다. 포털 다음에서는 실시간 검색 2위를 기록했고, 포털 네이버의 뉴스노출은 6000건이 넘었다. 광주가 웹콘텐츠의 메카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광주는 웹콘텐츠의 인재를 양성하는 산실이 되어야 하고, 웹콘텐츠의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미래의 먹어 거리는 웹콘텐츠에 달려있고, 광주는 그 중심에서 있다.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는 한 우리는 모두 웹꾼이다. 웹꾼들은 우리가 할 일을 누구보다 잘 안다.

社 說

보조금만 타먹고 폐업, 감독기관은 뭐했나

강진군은 지역 특성을 살려 '수산식품 특화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칠량면 송로리 일대에 101억 원을 들여 농공단지를 조성했다. 14만 8924㎡(4만5050평) 규모의 농공단지 는 51%가 분양돼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8곳에는 업체당 6억~9억 원 등 모두 60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조성 당시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보조금이 지원된 2개 업체는 경매가 진행됐고, 1개는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 또 다른 곳은 휴업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원인은 무엇보다 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핵심한 것은 단지 조성 취지에 부합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수산업이 주업종이 돼야 하지만 영통하게도 건설과 도자기 생산 업체도 포함했다는 점이다. 또 단지 입주 과정에서 매출과 지방

세 납부 실적 등 사업 관련 흔적조차 없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점도 드러났다. 따라서 처음부터 보조금을 노린 '유령업체'가 뛰어 들었을 가능성에도 이를 거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혹은 담당 공무원과 목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부도 처리된 한 업체는 강진군의 협조로 담보 대출을 받았지만 자산보다 빌린 돈이 더 많아 지원된 보조금을 노린 날릴 형편이라고 한다. 열세 남비의 전행이라 하겠다. 처음부터 자격을 따져 보았는지, 보조금 회수 방안을 제대로 살펴서 봤는지 묻고 싶다.

강진군과 전남도는 칠량농공단지 관리 실태를 원점에서부터 들여다보고 반드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 톨이라도 보조금 회수에 나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사법 당국도 인허가나 보조금 배정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를 비리 여부를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노쇼' 피해 심각...예약 지키는 문화 절실하다

예약을 해 놓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예약 부도) 손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성수기만 되면 음식점과 숙박업소, 대중교통업체 등이 노쇼로 인한 피해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하고 한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노쇼 피해도 만만치 않다. 펜션·리조트와 음식점 등 서비스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콜택시 등 대중교통업체도 피해를 호소하고, 심지어 병원까지도 예약 환자가 나타나지 않아 낭패를 본다 고 한다.

예약을 했다가 정말 급한 사정이 발생해 취소하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병원, 식당, 미용실, 고속버스, 공연장 등 5개 서비스 부문 업체들이 노쇼로 인해 입은 매출 손실이 총 8조 28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의 손해를 우리 사회가 감당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고용손실은 10만 8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우리 사회의 노쇼는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여겨가 법계 넘길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

이처럼 노쇼 피해가 두드러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나서 예방책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예약 때 신용카드 정보로 미리 받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국내에서도 예약 부도 수수료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약 부도에 따른 책임을 소비자에게 물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와 업체를 중심으로 더 이상 노쇼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나 자신'이 최종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약 부도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의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3년 전 서울대에서 '지균충' 논란이 인 적이 있다. 서울대 학생 인터넷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지역균형선발 출신 학생들을 비하하는 글이 올라온 것이 계기가 됐다. 지역균형선발은 대학들이 놓여준 출신 고교생들에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충족되면 입학할 허가한 제도인데, '지균충'은 지역균형선발의 약자 '지균'에 벌레 '충(蟲)'자를 합쳐 만든 말이다.

지균충에서 더 나아가 저소득층·장애인·북한 이탈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회균등선발 특별전형 출신 학생을 가리켜

'지균충' 대학

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거저먹었다"는 생각을 가진 이른바 '강남 8학군' 학생들이 이들을 왕따시키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같은 시기 미국 하버드대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이 대학 2학년생 개미코 마사다와 로렌스가 백인 학생들로부터 "글을 읽을 줄 아느냐?"라는 모욕을 당한 후 '나도 하버드생이야'라는 운문을 전개했다. 흑인 하버드생은 지적 능력이 모자라는데도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 덕에 입학했을 것이라는

편견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은 우리로 치면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다. 미국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이 제도를 도입해 대학의 창의성과 다양성 강화 및 사회통합 신장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입 초기 백인 상류층 등 주류 집단 소속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 정책이 없었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컬럼비아대와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했을 것이

라며 그의 대학학력고사(SAT) 성적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미국은 이 정책의 골간

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이화여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설립하기로 하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실업률 고교 출신 재직자나 30살 이상 무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해 학위를 주려고 하자 '학위장사'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들어온 학교인데 고졸 애들하고 나누라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과도한 학벌주의는 과거 지균충 논란을 연상시킨다. 씬

슬하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열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